

한국불교는 '세종시 시대' 준비 중

조계종·천태종, 세종시에 총무원 분소·전승관 건립

한국불교 주요 종단인 조계종과 천태종이 총무원의 중심 역할을 하는 총무원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분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4일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 33대 집행부의 성과인 토지처분금을 목적사업에 활용해 신도시 사찰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종시 신도시에 조계종 사찰을 건립하고 총무원 분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세종시 총무원 분소 설치하는 현 입지 내 가능한 일"이라며 "3000여 평 규모의 사찰과 청사를

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찰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태종은 세종시 인근에 전통문화전승관을 세운다는 계획을 내놨다.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1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천태종 사찰인 대전 유성 광수사 옆에 천태문화전승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새 총무원이 들어설 전통문화전승관은 세종시에서 자동차로 15분에서 20분 남짓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은 현 총무원장 도정 스님이 대전 광수사 주지에 있을 때 매입한 부지 3만평에 자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 예산 등 총 400여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 2017년까지 이전 불사를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도정 스님은 총무원 이전 사업과 관련해 "총무원 이전은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가 앞으로 대전 지역이 한국불교의 중심지로 큰 역할을 할 곳이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며 "대조사의 뜻을 받들어 종단 스님들도 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며 신도시 포교와 종단의 행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대전에 전통문화전승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정 스님은 "조계종과 태고종, 진각종 등이 앞서서 전통문화전승관 불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기에 벤치마킹해 천태종의 특징을 잘 반영할 불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요 종단들의 잇단 세종시 총무원 분소 설치 등의 발표에 불교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대전 인근은 새로운 인구 밀집지역으로 신도시 포교가 가장 절실한 곳"이라며 "주요 종단 총무원의 청사와 분소가 건립될 경우 지역 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대표 법승 스님은 "포교적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초기 단계부터 명확하고 누수없는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충남 권역 포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짜라고 외치며 당당히 경기를" 국민멘토 해민 스님과 태릉선수촌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치 동계올림픽과 인천아시안게임의 선전을 기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해민 스님은 1월 14일 태릉선수촌을 찾아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마음치유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300여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해 스님과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졌다. 해민 스님은 이 자리에서 '그래! 우짜라고!' 열등감을 버리자' 등 6가지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올림픽 선전을 기원했다. <관련기사 5면> 태릉=노덕현 기자

- 조계종
- 협의양도 종교 부지에 도량 건립해 분소 활용
- 공무원 포교 전진기지
- 천태종
- 유성 광수사 옆 부지에 2018년까지 전승관 건립
- 종단 행정 홍보 역할 예정

구상하고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전법도량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이 준비하고 있는 사찰은 2012년 서울 일선 사찰이 소유한 세종시 종교 용지를 양도 받은 것으로 부지 선정에 있어 1순위를 배정 받은 것이다.

조계종 신도시 정책 특보 허운 스님은 "현 집행부는 시작부터 신도시 포교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었다"며 "직장직능단체 등 가장 주요한 정부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행정수도인 만큼 중앙총무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지역 '랜드마크

976호 INDEX

신사찰 건축 - 동국대 대각전 13

종합 2·3
주요종단 수장 신년 기자회견
국제선센터 입산부 템플스테이
한마음 촛불제 열린다
종단협 신년하례법회

청계사 108선원 순례 12
의성 교운사, 안동 봉정사 등
불교로 읽는 古典- 명자 24
갤러리 색즉시공 28

백련재단 "돈점논쟁과 군부 비교 억지" 서명원 "절대화 벗어나 다양한 해석을"

백련·서명원 측 성철 스님 논문 논란

서명원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사진·천주교 예수회 신부)가 성철 스님을 주제로 쓴 논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명원 교수는 <가야산 호랑이의 체취를 맡았다-퇴옹성철, 이 뭇고?(서강대출판부 발행)>을 펴냈다.

그동안 성철 스님의 선 사상에 천착해 온 서 교수가 20여 년 동안 성철 스님을 연구하며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 6편을 추려 모은 책이다.

논란의 논문은 이 책 중 마지막 편에 실린 '20세기 한국사와 퇴옹성철의 사자후-깨달음과 역사인가, 역사와 깨달음인가?'로 2012년 6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의 영문학술지인 서울저널(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에 투고한 것이다.

서 교수는 논문에서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을 통해 지닐 스님의 돈오



고향이 합천이기에 합천 해인사에 주석한 성철 스님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더불어 박정희, 전두환, 성철 스님이 경상도 사람이라는 표현은 지역 감정 구도로 학자로서 선풍해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명원 교수는 "성철 스님이 돈오돈수를 견지한 것이 오랜 지론이었다고 하지만 독수자로서 지론을 갖고 있는 것과 1960년대 공생화를 시작한 것은 차원이 다르며 이는 한국불교사상 큰 사건"이라며 "불교를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학자의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백련 "불량한 주장 유감" 서 교수 "건전한 비판 당부"

점수를 비판하고 돈오돈수를 강하게 드러낸 것을 불교사상적 쿠데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불교계 역량을 모은 방식과 당시 정권이 쿠데타와 이후 북한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통치해 결집을 이끌어낸 방식이 6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성철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700여 년 만에 보조 스님의 돈오돈수를 비판한 스님의 돈오돈수는 학계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불교계의 사상적 쿠데타라고 하는 말이나 5·16 쿠데타, 전두환 정권과 맥락이 달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이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돈오돈수는 1940년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 평생 동안 견지했던 지론으로 1967년 해인사에서 실한 '백일법문'에서 돈오돈수를 비판한 것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서 교수는 "비구·대처 간 싸움에서 썩대밭이 된 한국불교의 밑바탕을 다지기 위해 백일법문을 하셨다. 조계종이 탄생한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며 "성철 스님께서는 돈점논쟁을 통해 기강을 잡을 수 있었다. 수행법에 대해서도 이리저리 왔다갔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 해주셨다. 아주 튼튼한 기반을 세워주시는 것이다. 이제는 그 위에 다양성을 존중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박정희 정권 또한 당시 한국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리며 결국 정치적 요구도 올라가게 했다. 사람들이 먹고살기 편해지자 민주주의가 발현됐고 그에 따라 당시 독재에도 긍정과 부정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역사 속에서 지나친 절대화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교수는 감정에 치우친 비판보다는 건전한 학문적 비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교수는 "오히려 성철 스님의 불교를 절대화하지 않고 수많은 해석이 형성될 수 있을 때, 그 분의 사상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2014년 한마음아버지마당 교육생 모집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교육신청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 Tel. 031-471-6926~7

범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도 안심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마 음 범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대장부 범어 : 가장 광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 날개 5,000원 • 세트(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